

관광관련 정부정책

제709호 (2020년 5월 셋째 주) 정책정보센터 Tour.go.kr

[중소벤처기업부] 코로나19 발생 여파, 바로 소상공인 매출에 영향	2
[해양수산부] 국민이 즐겨찾는 마리나, 함께 성장하는 마리나 만든다	4
[인천광역시] '인천 MICE창업지원 사업' 비대면 온라인 설명회 개최	6
[광주광역시] 광주관광 컨트롤타워 광주관광재단 설립 박차	7
[대전광역시] 대전시, 스토리텔링 발굴로 관광코스 메뉴화	9
[강원도] 강원도 2020 예비 열린관광지 7개 선정	10
[전라남도] 전남도, 서남해안 섬 지역 '명품 테마숲' 조성	12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 치유의숲, 붉은오름자연휴양림, 사려니숲길, 2020 전국 예비열린관광지로 뽑혀	14
[제주특별자치도] 도, 제주관광진흥기금 특별융자지원 18일까지 접수	16

[중소벤처기업부] 코로나19 발생 여파, 바로 소상공인 매출에 영향

-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자 발생지역 소상공인 매출에 부정적
-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생활속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것이 소상공인과 서민경제를 살리는 것

- 중소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가 2월 3일부터 매주 조사하고 있는 '소상공인 매출액 조사' (15차, 5.11일)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 발생 여파가 바로 소상공인의 매출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 지난 4월초부터 소상공인의 매출이 전반적으로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5월초 이태원 클럽 관련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직후 서울, 경기·인천 등 지역의 소상공인 매출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편 최근 4주간 강원(70.0 → 38.9%)과 대구경북(72.9 → 54.6%)지역의 매출회복이 뚜렷하다.

〈 코로나19 발생 전 대비 소상공인 매출액 감소 비율(지역별) 〉

(단위 : %)

지역	15주차(금주)	14주차(전주)	전주 대비	13주차(4.27)	12주차(4.20)
서울	64.0	53.8	10.2	52.9	66.3
제주	60.0	56.0	4.0	57.5	76.7
광주·호남	56.4	54.7	1.7	53.7	62.9
대구·경북	54.6	64.4	△9.8	68.6	72.9
대전·충청	53.5	54.3	△0.8	58.0	61.3
부·울·경	53.0	56.5	△3.5	58.2	67.0
경기·인천	51.4	50.9	0.5	53.5	57.3
강원	38.9	47.8	△8.9	49.1	70.0

- 업종별로는 관광·여가·숙박, 교육서비스, 음식점 등의 매출이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다른 업종보다 코로나19 발생에 더 민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 코로나19 발생 전 대비 소상공인 매출액 감소 비율(업종별) 〉

(단위 : %)

업종	15주차(금주)	14주차(전주)	전주 대비	13주차(4.27)	12주차(4.20)
관광·여가·숙박	76.9	67.9	9.0	72.2	87.6
교육서비스	64.1	62.2	1.9	63.7	68.7
의류·신발·화장품	55.6	62.7	△7.1	63.9	64.7
음식점	50.6	49.3	1.3	58.8	58.6
농·축·수산물	47.1	47.1	-	48.6	54.3
가공식품 및 종합소매	42.4	50.7	△8.3	45.6	55.1

- ☐ 한편,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소상공인의 자체 노력에 대한 질문(이하 복수응답)에서는 배달판매 확대 29.0%, 세일·이벤트 등 마케팅 강화 17.5%, 온라인 판매 확대 5.2% 순으로 나타났으며,
- ☐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정부에 요청하는 사항으로는 소상공인전용상품권 확대 93.7%, 홍보·마케팅비 지원 9.3%, 지역축제 등 공동이벤트 확대 6.7% 순으로 나타났다.
- ☐ 이번 조사는 소상공인 정책수립 및 현장애로 파악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 2월 3일부터 매주 소상공인 사업장 300개, 전통시장 220개 내외를 대상으로 패넬 조사 방식으로 코로나 확산 이전 대비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매출액 변화를 조사하고 있다.
- ☐ 중기부 박영선 장관은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코로나19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확인한 결과”라고 하면서,
- ☐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생활속 거리두기, 아프면 3~4일 집에 머물기, 두팔 간격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등을 실천하는 것이 소상공인과 서민경제를 살리는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042-481-4597) | 게시일 : 2020.05.13.)

[해양수산부] 국민이 즐겨찾는 마리아, 함께 성장하는 마리아 만든다

- 해수부, 제2차 마리아항만 기본계획(2020~2029) 수립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레저, 휴양, 문화가 공존하는 마리아항만을 조성하기 위해 ‘제2차(2020~2029) 마리아항만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5월 15일(금) 고시한다.

□ 마리아항만 기본계획은 「마리아항만법」에 따라 마리아항만의 중장기 정책 방향을 담는 10년 단위 장기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제1차 마리아항만 기본계획(2010~2019)’에 따라 2013년부터 거점형 마리아항만 6개소*를 지정하여 조성하고 있으며, 2017년에는 마리아선박 대여업과 보관·계류업을 신설하여 현재 188개 업체가 운영되는 등 신규 창업의 기회도 마련하였다.

* 울진 후포, 창원 진해명동, 안산 방아머리, 여수 웅천, 부산 해운대, 당진 왜목

□ 해양수산부는 1차 기본계획을 통한 인프라 기반과 산업 활성화 정책을 발판 삼아, 이번 제2차 마리아항만 기본계획(2020~2029)에서는 마리아항만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고 권역별 거점항만을 마리아 중심의 허브공간으로 조성하는 한편, 민간 투자기회를 확대하여 본격적인 마리아 산업 도약기를 이룬다는 계획이다.

□ 이를 위해 2차 기본계획에서는 ①국민이 즐겨찾는 마리아, ②지역과 함께하는 마리아, ③산업이 성장하는 마리아 등 3대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10개 정책과제를 마련하였다.

□ 첫 번째, 거점 마리아항만과 연계한 체험교실을 확충하고 요트대회나 축제도 추가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섬 관광 등과 연계한 마리아항만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항해정보도나 창업절차 등을 제공해주는 마리아 이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국민들이 더욱 쉽게 마리아항만을 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두 번째, 지역 거점형 마리아항만 조성을 마무리하는 한편, 어촌뉴딜300 사업 등과 연계하여 지역별 마리아 계류공간을 확보하고, 안전·환경 표준지침 마련 등을 통해 마리아 및 인근 환경도 체계적으로 개선하여 마리아항만의 지역발전 기여도를 대폭 높일 계획이다.

□ 세 번째, 마리아산업 네트워크의 구심점이 되어줄 수 있는 마리아비즈센터 2개소 건립을 지속 추진하고, 마리아 서비스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정비사 양성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마리아업 창업 지원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마리아 관련 보험 및 금융제도를 개선하여 마리아 산업의 성장 토대를 다질 계획이다.

□ 한편, 2019년 말 기준으로 현재 우리나라에는 총 23,639척의 레저선박과 전국 37개소,

2,403선석의 마리나시설이 있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2차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마리나항만을 통한 중장기 레저선박 이용 수요를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2029년에는 내수면을 포함하여 35,000척의 수요가 있을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지속적인 시설 확충이 요구되었다.

*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 조종면허 취득, 대형자동차 등록 현황 등을 통해 분석

- 이에, 해양수산부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실시하고 전문가 평가를 거쳐 전국 9개 권역에 70개소*(해수면 55, 내수면 15)의 마리나항만 예정구역을 선정하였다. 마리나항만 예정구역은 전국 연안 중 마리나항만을 조성하기에 적합한 여건을 갖춘 지역으로, 이번 지정에 따라 앞으로 지자체나 민간의 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수도권(10), 충청권(10), 전북권(4), 전남권(11), 경남권(9), 부울권(9), 경북권(6), 강원권(5), 제주권(6)

- 류재형 해양수산부 해양산업정책관은 “제2차 마리나항만 기본계획은 앞으로의 수요를 예측하여 마리나항만 시설을 확충하고 마리나 산업 육성을 위한 단계별 방안을 제시하는 계획이다.”라며, “이를 통해 거점형 마리나항만을 확충하고 서비스업을 창출하여 국민의 해양레저관광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지역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관광과(044-200-5276) | 게시일 : 2020.05.14.)

[인천광역시] '인천 MICE창업지원 사업' 비대면 온라인 설명회 개최

- 사업화 지원금 2배 증액, 오는 5.14.(목) 오후 2시 공모전 홈페이지 참조

- 인천시(시장 박남춘)와 인천관광공사(사장 민민홍)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인천 MICE창업지원사업 공모전'에 대한 설명회를 온라인으로 오는 14일 진행한다고 밝혔다.
- 시에서는 오는 22일까지 '인천 MICE창업지원사업 공모전'을 통해 MICE분야 창업 아이디어를 보유한 유망 스타트업기업을 모집 중에 있으며 공모를 통해 선발된 기업에는 사업화 자금, 창업교육, 맞춤형 컨설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며 올해는 사업화 지원금을 2배로 늘려 총 2억2천5백만원 규모로 25개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 이번 온라인 설명회는 본 공모전에 관심이 있는 참가 예정자들의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코로나19 상황에서 오프라인으로 예정되었던 설명회를 온라인으로 대체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 온라인 사전설명회는 오는 14일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실시간으로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을 수 있다. 대면 설명회와는 다르게 장소에 제한받지 않는 점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 온라인 사전설명회 참가방법은 '인천 MICE 창업지원사업 공모전 홈페이지 (www.travelicn.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인천 MICE창업지원 공모전'에 참가를 희망하는 기업 또는 예비창업자는 22일 18시까지 접수서류를 준비하여 인천관광공사 운영사무국 (문의처 : 070-7873-0682 / E-mail : sea@wplanet.co.kr)을 통해 이메일 접수하면 된다.
- 김충진 마이스산업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사전설명회를 개최하여 마이스창업에 관심있는 기업들의 궁금증을 해결할 예정이며 국내 마이스업계가 겪고 있는 어려움에 힘을 보태기 위해 인천 MICE 창업지원 사업화 지원금을 두배로 증액하였고 초기 창업자들에게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여 인천에서 마이스산업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라고 밝혔다.

(인천광역시, 마이스산업과(032-440-1502) | 게시일 : 2020.05.12.)

[광주광역시] 광주관광 컨트롤타워 광주관광재단 설립 박차

- 13일 발기인 총회…취지문 채택, 정관안 의결, 임원추천위 구성 논의
- 광주컨벤션뷰로 사무·직원 승계해 25명으로 7월 중 정식 출범 예정
- 관광콘텐츠 확충, 관광객 유치, 국제회의 지원, 관광여건 개선 등 역할
- 이용섭 시장 “광주만의 고유함·독특함 상품화해 국제관광도시 도약”

- 광주 관광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될 광주광역시 관광재단이 출범을 위한 첫 번째 공식 절차인 발기인 총회를 개최하는 등 설립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 광주광역시는 13일 오후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관광재단 설립 전 집행기관 성격의 발기인 총회를 열어 광주관광재단의 초석이 되는 관광재단법인 설립 취지문 채택, 정관안 심의 의결, 이사회 구성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계획 등의 안건을 논의했다.
- 총회에는 이사장인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을 비롯해 정순애 시의원, 이진식 국립아시아 문화전당장, 이상태 한국관광공사 광주전남지사장, 정길영 광주시관광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 이날 총회에서는 관광재단 설립을 위한 그동안의 추진사항과 설립 계획이 보고 됐다.
- 보고에 따르면 관광재단은 기존 광주관광컨벤션뷰로 조직의 사무와 직원들을 고용 승계해 7월 중 정식 출범할 예정이며, 광주관광컨벤션뷰로는 해산절차를 거치게 된다.
- 관광재단의 조직은 대표이사를 포함해 총 25명으로 구성된다. 컨벤션뷰로 인력을 승계하고 추가로 필요한 인력은 법인 출범과 함께 추가로 채용할 예정이다.
- 광주관광재단은 광주지역의 분산된 관광자원과 연관산업을 체계적으로 연계·통합 관리하고, 관광행정력 집중을 통한 관광 진흥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통합기구로 설립된다.
- 주요 기능은 관광자원의 개발과 상품화 등 관광콘텐츠 확충, 국내외 관광홍보 및 마케팅을 통한 관광객 유치, 기업회의 및 국제회의 개최지원, 지역 관광정보의 수집 및 제공, 관광편의 및 관광여건 개선사업, 관광기업의 육성 및 지원, 전문인력 양성 및 역량 강화 사업 등이다.
- 이용섭 시장은 “설립될 광주관광재단이 의향의 정의로움, 예향의 전통문화예술, 미향의 맛깔스러운 음식 등 광주만의 고유함과 독특함을 상품화·브랜드화·산업화해 광주만의 일거리, 먹거리, 볼거리를 만들고, 국제관광도시로 발돋움해나가는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또 “변화하는 관광트렌드에 발 빠르게 대처하고 관광객 유치를 위한 통합마케팅 전략 수립과 홍보, 관광산업 및 인력양성 지원 등 광주관광의 종합컨트롤타워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광주시도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광주광역시, 관광진흥과(062-613-3620) | 게시일 : 2020.05.13.)

[대전광역시] 대전시, 스토리텔링 발굴로 관광코스 메뉴화

- 관광트렌드 분석으로 맞춤형 관광콘텐츠 개발 용역추진

- 대전시는 기존 관광지와 숨은 관광지의 스토리를 발굴하고 방문객에게 시·공간적 맞춤형 관광코스를 제공하기 위한 용역을 추진한다.
- 대전시는 지난 달 맞춤형 관광콘텐츠 개발을 위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오는 12월까지 용역을 완료한 후 개발된 관광홍보 콘텐츠를 관광마케팅에 활용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 이번 용역에는 사업비 1억 원이 투입되며, 대전 스토리텔링 협의체 운영, 대전시 스토리텔링 연구자료 조사와 발굴, 맞춤형 관광코스 상품개발, 관광홍보 콘텐츠 개발 등이 추진된다.
- 대전시는 스토리텔링을 발굴해 가족, 연인, 친구를 위한 세대공감 코스, 반나절, 한나절 시간맞춤형 코스, 체험형 코스 등 여행자가 골라 갈 수 있는 관광코스를 개발할 계획이다.
- 또한, 관광트렌드를 분석하고 실효성 있는 용역을 추진하기 위해 대전 스토리텔링 협의체를 구성하고 용역추진기간 동안 지속적인 자문을 받을 계획이다.
- 모두 8명으로 구성된 스토리텔링 협의체는 학계, 여행협동조합, 관광벤처기업, 스토리텔링&멀티미디어 콘텐츠 개발업체, 드라마 작가, 청년이 모여 대전관광지 스토리 발굴 및 관광프로그램 개발계획을 논의하게 된다.
- 대전시 박도현 관광마케팅과장은 “대전 스토리텔링 자원과 관광코스를 연계하는 관광홍보 콘텐츠 개발로 여행객이 찾고 싶은 흥미로운 관광도시로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전광역시, 관광마케팅과(042-270-3981) | 게시일 : 2020.05.12.)

[강원도] 강원도 2020 예비 열린관광지 7개 선정

- 강원도 3개 시군, 7개 관광지 선정(강릉 커피거리/경포해변/연곡솔향기캠핑장, 속초 해수욕장관광지/아바이마을, 횡성 호수길5구간/유현문화관광지)

□ 강원도는 “2020년 예비 열린관광지 공모사업”에 국비 17억5천만원 규모로 강릉시(커피거리, 경포해변, 연곡솔향기캠핑장), 속초시(해수욕장관광지, 아바이마을), 횡성군(횡성호수길5구간, 유현문화관광지) 3개시군에 7개 관광지가 선정되었다.

○ ‘열린 관광지 조성 사업’은 장애인, 고령자, 영유아 동반 가족 등 관광 취약계층이 이동의 제약없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기존 관광지를 개·보수해 국민의 관광 향유권을 보장하는 사업이다.

* '20년부터 조성이 완료된 관광지점과 아직 조성하고 있는 관광지점을 구분하기 위해 ‘예비 열린 관광지’ 제도를 도입

○ 이번 공모에서는 전국 23개 지자체(71개 관광지점)가 지원한 가운데 12곳(40개 관광지점)이 1차 서류 심사를 거쳐 2차 현장심사를 참여했다. 최종 전국 9개 지자체 23개 관광지가 선정되었다.

○ 이 가운데 강원도는 강릉시(커피거리, 경포해변, 연곡솔향기캠핑장), 속초시(해수욕장관광지, 아바이마을), 횡성군(횡성호수길5구간, 유현문화관광지) 3개 시군에 7개 관광지가 선정되었으며, 전국 지자체 중 4개 이상관광지가 선정된 곳은 강원도가 유일하다.

○ 이번에 선정된 곳은 전문가들의 맞춤형 컨설팅을 거쳐 세부 개선 계획을 확정된 후 선정된 관광지에 대해 예비 열린 관광지 조성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 강원도는 연말까지 도비 5억2,500만원을 투입해 강릉커피거리 등 7개소 ‘예비 열린 관광지 조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 먼저 강릉시는 커피거리, 경포해변, 연곡솔향기 캠핑장의 장애인 주차장과 화장실 등 휴게공간을 개선한다. 아울러 수상휠체어 해수욕 체험 및 휠체어 컬링 등 체험콘텐츠를 발굴할 계획이다.

○ 속초시는 속초해수욕장과 아바이마을을 대상으로 주차장 및 화장실 시설개선과 피톤치드 삼림욕 체험을 위한 목제테크, 관광약자를 위한 낚시존 테크 조성을 실시한다.

○ 횡성군은 횡성호수길(5구간)에 장애인 화장실 등을 개선하고 무장애 트레킹 코스 신설과 영유아 대상 생태놀이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유현문화관광지에 장애인 주차구역을 신규 설치하고, 전통체험(짚 공예) 콘텐츠를 발굴 할 계획이다.

- 정일섭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이번 예비열린관광지 선정을 계기로 이동에 불편함 없이 강원도 대표 관광지를 둘러 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기회로 생각하며”
- 동시에 “무장애 관광코스 개발, 무장애 여행상품 ‘동행’운영 관광약자 인식개선 교육 등 강원도 무장애 관광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강원도, 관광마케팅과(033-249-3381) | 게시일 : 2020.05.13.)

[전라남도] 전남도, 서남해안 섬 지역 '명품 테마숲' 조성

- 2029년까지 총 3천 750억 투자...16개 시군 63개소 조성

- 전라남도는 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와 연계, 섬별 향토문화역사성을 부각한 난대숲 복원조성을 통해 블루 이코노미 대표 명품 테마숲을 조성기로 했다.
- 전라남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2천 165개 섬(전국 3천 352개, 64.5%)의 비교우위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남의 가고 싶은 섬, 천사대교 개통 등으로 섬 관광수요 증가에 걸맞는 테마 섬 숲 조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 이를 위해 서남해안 섬숲 생태복원사업 종합계획을 수립, 올해 신규 국고사업으로 선정돼, 오는 2029년 까지 총 3천 75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 산림청은 전남도의 도서지역 실태조사와 서남해를 중심으로 한 구상용역 자체 실시 등 섬숲 복원에 대한 청사진 제시에 따라 이번 지원을 결정하게 됐다.
- 전라남도는 서해안 영광을 시작으로 남해안 광양까지 16개 시군 63개소의 섬 지역을 중심으로 세 가지 유형의 테마숲을 복원조성할 계획이다.
- 우선 영광군과 함평군, 무안군, 목포시, 신안군, 진도군, 완도군 등 다도해권을 중심으로 사계절 아름다운 꽃이 필 꽃섬 35개소를 조성한다. 대표 선도 사업으로 신안 하의도 평화의 숲 조성에 350억 원을 투자해 동북아 평화 상징숲을 추진중에 있다.
- 영암군, 강진군, 해남군, 장흥군, 보성군 등 남도문화권은 역사문화인문 콘텐츠를 가미한 섬숲 14개소를 복원해 지역의 관광자원과 연계한다.
- 여수시, 고흥군, 광양시 등 해양레저권은 섬과 섬을 연계한 해양레포츠 섬숲 14개소를 조성, 다양한 즐길거리를 제공기로 했다.
- 특히 올해 43억 원을 확보해 산림청과 전남도, 신안군이 공동으로 연구해 신안군 안좌도와 자은도 일원에 섬숲 복원을 추진하고 있다.
- 전라남도는 차질없는 사업 추진을 위해 타당성 평가를 실시해 전남 섬 지역에 가장 적합한 모델이 될 숲을 발굴조사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행정절차 이행 등 사업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 박현식 전라남도 동부지역본부장은 “병해충 피해, 태풍 등으로 방치훼손된 섬 숲을 복원하고 새롭게 조성해, 섬 주민들에게 아름다운 생활터전을 제공하고 방풍림으로써 기능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섬 특유의 문화와 인문자원 등과 어울리는 테마

숲을 조성해 블루 이코노미 대표 해양 경관숲으로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라남도, 산림보전과(061-286-7530) | 게시일 : 2020.05.13.)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 치유의 숲, 붉은오름자연휴양림, 사려니숲길, 2020 전국 예비열린관광지로 뽑혀

- 문화체육관광부, 열린관광지 공모사업 전국 9개 권역 23개 관광지 선정

- 서귀포 치유의 숲, 붉은오름자연휴양림, 사려니숲길 삼나무숲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한 2020 전국 예비열린관광지¹⁾로 선정됐다.
- 제주특별자치도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실시한 2020년도 전국 예비열린관광지 사업 공모 결과 제주지역 3개소 관광지가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올해의 열린관광지에는 제주도(서귀포), 강원도(강릉, 속초, 횡성), 충북도(단양), 전북도(임실), 전남도(완도), 경남도(거제) 등 전국 9개 권역의 23개 관광지가 선정됐다.

〈2020 예비 열린 관광지〉

지 역(9)	관 광 지(23)
충북 단양군(2)	다리안관광지, 온달관광지
제주특별자치도(3)	서귀포 치유의 숲, 사려니 숲길 삼나무 숲, 붉은오름 자연휴양림
경기 수원시(3)	수원화성연무대, 수원화성장안문, 화성행궁
강원 속초시(2)	속초 해수욕장 관광지, 아바이 마을
강원 횡성군(2)	횡성호수길5구간, 유현문화관광지
강원 강릉시(3)	강릉커피거리, 강릉경포해변, 연곡솔향기캠핑장
전남 완도군(3)	신지명사십리해수욕장, 완도타워, 정도리 구계동
경남 거제시(3)	수협효시공원, 포로수용소유적공원평화파크, 칠천량 해전공원
전북 임실군(2)	임실치즈테마파크, 옥정호 외얏날

- 이번 공모는 지난 1월 16일 사업설명회를 시작으로, 2월 17일부터 3월 4일까지 23개 지방자치단체(71개 관광지점)에서 사업신청이 이루어졌다.
- 1차 자격심사, 2차 정량평가에서 12개 지방자치단체(40개 관광지점)가 결정됐으며, 이어 4월에 3차 전문가 현장평가를 거쳐 9개 지방자치단체(23개 관광지점)가 최종 확정됐다.
- 강영돈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국장은, “이번 선정을 계기로 관광약자를 포함한 다양한 계층의 관광객들을 수용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가겠다”며 “코로나19 이후 제주의 대표 콘텐츠로서 질적관광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해당관광지와 긴밀한 협업을 통하여

1) 장애인, 고령자, 영유아 동반 가족 등 관광 취약계층이 이동의 제약 없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기존 관광지를 개보수해 국민의 관광 향유권을 보장하는 관광지. 2020년부터 조성이 완료된 관광지점과 아직 조성하고 있는 관광지를 구분하기 위해 ‘예비열린관광지’제도를 도입했다.

관리와 홍보에 더 많은 정책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 한편, 열린관광지 공모사업은 장애인, 노년층, 영·유아 동반가족 등 관광취약계층에 균
등한 여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15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다.
- 2015년부터 2019년까지 4개년간 전국적으로 49개 관광지가 선정되었고, 제주지역은
지난 2017년에 천지연폭포가 뽑힌 바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정책과(064-710-3311) | 게시일 : 2020.05.13.)

[제주특별자치도] 도, 제주관광진흥기금 특별용자지원 18일까지 접수

- 지난 2월 20일부터 5월 12일 까지 1,390건·1734억 원 신청

□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관광사업체 특별 용자지원을 위해 지난 2월 20일부터 5월 12일까지 제주관광진흥기금 지원신청을 접수받은 결과, 총 1,390건·1,734억 원을 신청 받았다고 밝혔다.

- 업종별 신청 상황으로는 여행업 346건·252억원, 관광숙박업 178건·518억원, 렌터카 81건·154억원, 관광식당업 73건·127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 건설·개보수는 6건·15억원으로 경영안정자금에 신청이 집중된 것으로 확인됐다.

□ 업종별 접수상황을 분석한 결과,

- 여행사는 도내 전 업체 중 31%(346개소/1,108개소), 관광숙박업 43%(178개소/419개소), 렌터카 68%(81개소/120개소), 전세버스 73%(44개소/52개소), 관광식당업 40%(73개소/181개소) 등이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 그 외 일반숙박업은 16%(104개소/654개소), 농어촌민박업 3%(120개소/4,326개소)로 신청이 저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 용자신청을 하지 않은 원인을 살펴보면,

- 관광사업체 54%(1,108개소/2,063개소)를 차지하는 여행업체는 1인이 운영하는 영세사업자가 많아 임대료나 종업원급여를 주목적으로 하는 경영안정자금 신청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적었으며, 그 외에는 이미 담보 및 보증이 포화되거나 타 기금 지원 중복 등이 원인이었다.
- 관광숙박업, 관광식당업, 렌터카 등 비교적 규모 있는 업체인 경우에는 이미 담보 및 보증이 포화된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 일반 숙박업의 경우는 자가 영업이 많아 경비절감 등 자구책을 우선시하고 대출에 따른 상환부담을 회피하고 있으며, 농어촌민박업은 안전인증 요건 미비로 신청이 저조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관광진흥기금을 오는 18일까지 제주웰컴센터 내 관광진흥기금 특별지원센터에서 접수를 받을 예정이며, 아직까지 신청하지 않은 관광사업체는 접수 마감 일자에 늦지 않게 접수하여 주도록 당부했다.

- ☐ 한편, 제주관광진흥기금 특별융자는 5,700억 원 규모로 지원되고 있으며 융자자 부담 금리는 0.62%로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운 관광업계의 경영상 어려움을 더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정책과(064-710-3311) | 게시일 : 2020.05.14.)